

우연이란 인연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시 한 편 읽고 싶다면 꿈이 한국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한국인보다 더 애뜻한 마음으로 한국 시를 가르치는 웨인 드 포레메리 교수를 만났습니다.

동네 한 바퀴
서울 창신동
네팔마을

크로스뷰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



VOL. 51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공존」 51호 독자분들께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 속에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뜻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왔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도 코로나19 유입·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지역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비자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대응해왔습니다.

또한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민원을 대학 관계자가 대신하여 단체접수 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이동을 최소화하였으며 비대면 민원 처리를 확대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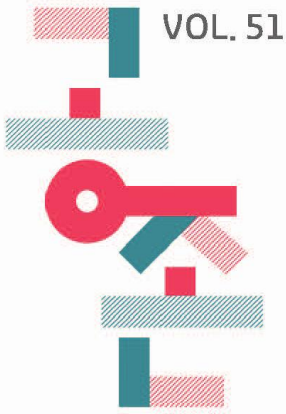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재한외국인들은 정성을 모아 구호 물품을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성금을 기부하는 등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5월 6일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었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끝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도 방역 사각지대를 보완해나가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책 마련에 힘쓰고 성공적으로 위기를 이겨내 '세계의 모범'이 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 규 근**



VOL. 51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공존〉 통권 제51호 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 및 디자인 한국표준협회미디어(02-2624-0360)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  자통출입국심사서비스
www.se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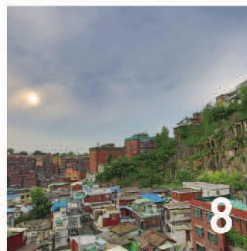

PEOPLE ZONE


WIN-WIN ZONE

4
나에게 한국은
한국 시 한 편 읽고 싶었던 꿈이 제 인생을 바꿨죠
- 웨인 드 프레메리 교수

8
동네 한 바퀴
창신동 네팔마을을 걷다

12
침표카페
안녕, 두인?



14
출입국 인사이트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코로나19 총력 대응의 최전선에서

20
어울림 공간
고객과 국민의 '공존 연결고리'를 꿈꾸다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24
이런 게 적극행정!
'적극행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다

26
손에 손잡고
'우리'가 되는 첫걸음! 사회통합프로그램

28
크로스뷰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

32
문화돋보기
더 잘 패배하기 위해 우리는 연대해야 한다
- 알베르 카뮈 『페스트(La Peste)』

34
숫자로 보는 출입국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명 시대

36
출입국 인사이트

한국 시 한 편 읽고 싶었던 꿈이 제 인생을 바꿨죠

글 | 김소리 사진 | 이동훈



서강대 대학원
국제한국학과 교수
웨인 드 프레메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생은 흥미롭다. 한국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가 한국 시에 천착하고 한국에 정착한 것 역시 일종의 '우연'이었다. 그러나 그의 얘기를 듣고 나면 우연이란 인연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 봄의 끝자락, 북한산 아래 자리한 조그마한 오두막 카페에서 한국인보다 더 애뜻한 마음으로 한국 시를 가르치는 웨인 드 프레메리(Wayne de Fremery) 교수를 만났다.

한국과 한국 시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교수님과 한국 사이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
오래전부터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방식이 저와는 좀 맞지 않았어요. 문학을 '쓰고' 싶었는데 교수들은 문학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으니까요. 정작 전공은 경제학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죽을 때까지 이런 그래프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었죠.

때마침 한국에 가있던 대학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졸업 이후 뚜렷한 계획이 없다면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쳐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당시엔 한국의 언어도, 역사도, 음식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새로운 곳에서 혼자 마음껏 시를 읽고 쓸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평택에서 1년간 영어강사로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시를 읽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 한국의 언어로 된 시 한 편 정도는 읽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게 됐죠. 이 생각은 곧 스스로와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1년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종이를 사러 문구점에 갔는데 문구점 주인이 한국인이더군요. 친구와 한국말로 대화 중이던 그에게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 다 화들짝 놀랐죠. 이후 우리는 친구가 됐고 한 주에 한 번 정도씩 만나서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제 안에는 아직도 한국어로 된 시 한 편을 읽고 싶다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마침 아는

한국 시인이 있다며 소개해주었어요. 그렇게 저의 첫 한국문학 선생인 강옥구 시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클레어 유 선생을 소개해주셨고, 다시 클레어 유 선생이 서울대 교수이자 문학비평가인 권영민 교수를 소개해주셨죠. 권 교수님께서 한국문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데니 서울로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게 제안하셨습니다. 문구점 한번 잘 갔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된 셈이죠(웃음).

이후 한국에 완전히 자리 잡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무엇인가요? 정착 과정도 궁금합니다.

●
한국어로 된 시 한 편을 읽고 싶었을 뿐 별다른 계획이 없었습니다. 권 교수님의 도움으로 서울대에서 석사는 수료했지만 박사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권 교수님이 강권해서, 그것도 반드시 하버드여야 한다고 하셔서 '어차피 떨어질 텐데 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만나 연애 중이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공부하러 함께 미국으로 갔습니다.

4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논문 쓸 때가 되어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본격적으로 정착한 시기겠네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사 교육 과정과 달리 논문을 쓸 때 지원이 따로 없더군요. 게다가 애들이 3살, 1살이었어요.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논문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내가 편히 일할 수 있는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기도 했고요. 아이들은 장인장모님께서 함께 살며 봐주셨습니다.

논문도 쉬이 풀리지 않았어요. 원하는 연구주제로 논문을 쓰기 위해 꼬박 1년을 알아보고 준비했지만 일제강점기 시집 원

본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주제를 전면 새로 잡아야 했죠. 내향적인 성격이라 밖에서 대화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 언어도 빨리 늘지 않았어요. 아이를 봐주시는 장인장모님과도 세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게 당연했고요. 첫 만남부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처가가 부산인데, 처음 큰절을 드리고 일어나자마자 장인어른이 “나가(나이가) 몇이고?”라고 큰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긴장한 나머지 뒷말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나가”만 들어서 나가야 하나,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무척 당황했었죠(웃음). 두 분 모두 무척 좋은 분들이고, 두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연구도 한국에서의 정착도 어려웠을 겁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해요.

한국 시를 읽고, 배우고, 가르치며 느낀 것들이 있으신가요?

● 보통 시를 읽으면 해석 방법 이전에 개인적인 느낌을 먼저 받기 마련이죠. 제 경우 미국에서 영어로만 글을 읽어왔으니 한국 시를 읽을 때 느끼는 감정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슬픔이라면 ‘sorrow’로 받아들일 것죠. 일종의 ‘미국식 슬픔’인 셈입니다. 이것 한국에서는 ‘한’이라는 말로 가르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과 sorrow가 무슨 관계인지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건 아마 죽을 때까지 설명하려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이처럼 한국 시에 대한 배경지식,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오�히려 개인적 경험과 감상에 따라 먼저 시를 접할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일반적인 해설이나 역사적 배경 등을 배웠죠. 한국 학생들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교육받은 셈이에요. 한국에서는 보통 자신의 감각으로 시를 느끼기 전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먼저 배우니까요. 진학을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교육이라는 거 아주 어려운 문제죠. 몇 년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제 말을 그대로 외우지 않고 시를 자기 감정, 자기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죠. 시어의 유니코드를 이용해 시를 3D 모형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이와 같은 맥

락입니다. 시를 낫선 형태로,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시험 자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심과 호기심도 무척 중요하죠. 시험 방식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시를 읽는 방법, 문학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문서를 DB화하고 시를 3D 모형화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씨게이트 등 다양한 곳과 손을 잡기도 하셨지요.

이러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교수님이 이뤄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하나만 말하기가 어렵네요(웃음). 최근에 가장 마음을 쏟는 일은 한국 문학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때 ‘변화’란 여러



“

저 개인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교수라는 직업도 얻었고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모든 게 다 한국 덕분이죠.

”



의미를 포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은 ‘문(Mo文oN) 프로젝트’와 같이 종이책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일뿐만 아니라 책 자체를 복제하는 것 또는 이를 다양한 장르와 형태의 콘텐츠로 만드는 것 등이죠. 변화 없이는 보존도 없습니다. 종이책은 원본이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데이터화하더라도 관심이나 호기심이 없으면 안 읽히고 잊히는 건 매한가지고요. 하지만 여러 형태로 변화하면 여러 모습으로 살아남습니다. 보존과 변화는 불가분 관계니까요. 좋은 예가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어딜 가도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원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복사와 변화가 원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옛날 책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면 기술적인 지식도 필수적입니다. 서지학에 대한 이해는 물론 다양한 공학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죠. 그런데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데 관심이 없거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타 분야 연구 결과물을 연구자의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시험이 바뀌어야 교육이 바뀌듯,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가 바뀔 때 더욱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을까요?

교수님께 ‘한국’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한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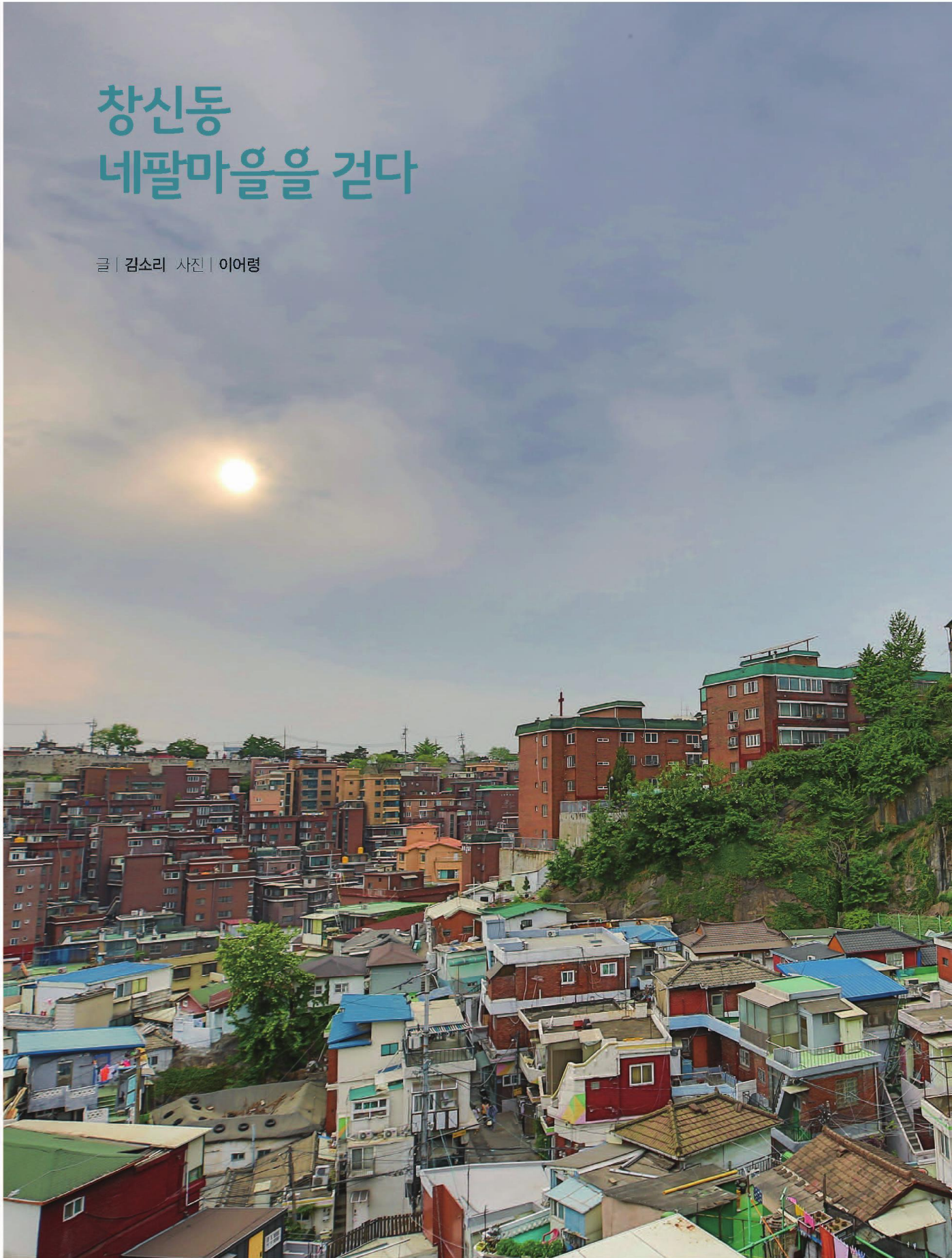
● 저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선진국’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느꼈죠. 미국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정책과 제도 등 여러 면에서 한국이 훨씬 앞서고 있지요.

한국에 온 지 20여 년, 햇수로는 30년입니다. 저 개인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교수라는 직업도 얻었고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모든 게 다 한국 덕분이죠.

포커스는 조금씩 바뀌겠지만 앞으로도 저는 지금까지와 비슷한 일을 해나갈 듯합니다. 학생들과 시를 공부한다니, 이보다 더 좋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 최근에는 책을 어떻게 만들고, 바꾸고,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밌는 기술을 배워가며 연구 중입니다. 서지학 관련 책도 두 권 쓰고 있고, 차차 번역하고 싶은 한국 시도 많습니다. 시를 쓰고 싶은 마음 역시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틈틈이 쓰고 있죠. 저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미 꿈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共**

창신동 네팔마을을 걷다

글 | 김소리 사진 | 이어령





도로 위 우뚝 선 동대문의 모습은 그리 낯설지 않다.
그러나 뒤편에 이어진 길로 걸음이 향한 일은 잘 없다.
한 블록 들어서자 사뭇 달라지는 분위기.
옛 동네같이 정겨우면서도 묘하게 이국적인 전경이 독특하다.
오랫동안 대한민국 의류봉제업의 중심지였던 창신동.
네팔 노동자들은 이곳에 자신들의 거리를 이루었다.
봉제 산업의 활기는 줄었지만,
이제 그 빈자리를 네팔의 맛과 문화가 채우고 있다.

골목골목 이어지는 창신동의 풍경

낮선 언어로 된 간판, 옷가지를 신고 달리는 오토바이, 담 너머로 들려오는 드르륵 소리, 언젠가 맡아본 듯한 쌓인 천 냄새... 창신동에는 00미싱, 00와끼 등의 간판을 내건, 공장인지 가정인지 구분하기 힘든 집들이 빼곡하다. 보통 동네의 마트와 달리 입구부터 실 재료를 가득 쌓아놓고 파는 모습이 눈에 띈다.

안으로 접어들수록 골목이 좁아지고 가파른 계단이 이어진다. 오른쪽, 왼쪽, 이따금 막다른 길도 만난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창신동의 골목길은 언뜻 봐선 조용하고 삭막하다. 그러나 뽀얀 수증기와 미싱 소리 덕에 골목에는 은근한 습기와 온기, 리듬이 감돈다. 조금씩 열린 문틈 안으로는 언제나 몇몇의 사람들이 보인다. 아래를 향하느라 보이지 않는 얼굴. 저 얼굴들이 품은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창신동에 '절벽마을'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낙산은 5월의 푸른 잎으로도 제 상처를 다 가리지 못한 채 발간 살을 내놓고 있다. 이곳에는 깎아지른 절벽, 중간중간 험하니 속이 빈 암벽을 밟고 선 집들이 적지 않다. 낙산은 일제강점기 때 채석장이었다. 암석 품질이 뛰어나 옛 서울역, 한국은행 본점, 조선총독부 건물 등을 모두 이곳에서 채취한 화강암으로 지었다.

조금 더 오르면 시야가 탁 트인 언덕배기 놀이터가 나타난다. 숨을 고르고, 저 멀리 남산타워와 창신동 전경을 바라본다. 한정된 공간에 발붙이기 위해 수많은 집이 어깨를 움츠린 채 엉겨붙어 있다. 파개비 같은 집들을 바라보며, 여린 살을 이곳에 대고 걸으며 더 단단해져야 했을 이들을 생각한다.



창신동 봉제노동자들의 '사계'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구제옷을 팔던 거리에 평화시장이 들어서고 동대문, 남대문에 의류산업이 꽃피었다. 의류업은 한때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수출을 견인하기도 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쉽 없이 돌아가는 창신동의 미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동대문 옆구리께 자리 잡은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봉제일을 배우며 자신과 가족의 삶을 일궈왔다.

90년대부터 봉제노동자가 빠르게 외국인으로 대체됐다. 이때 네팔 사람들도 대거 밀려들었다. 한 사람이 자리를 잡으면 친구, 가족이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낙산 비탈을 따라 피란민 판자집이 들어섰던 창신동은 피부색 다른 이들을 품어주기 시작했다.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지금이야 괜찮지만, 과거 한국에 오는 네팔인들은 '일단 동대문역만 찾아가면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길거리의 네팔인을 보고 알음알음 물으면 반드시 연결고리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낯선 땅에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온 네팔인들은 지금도 공장이 문을 닫는 설이나 추석이 되면 동대문 거리로 나와 도보를 메운다.

의류산업의 부흥기가 지나고, 노동단가를 이유로 상당수 공장이 해외로 이전했다. 적잖은 네팔인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남은 이들도 있다. 노동자로 혹은 네팔거리를 이루는 상점의 주인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다.





더욱 아름다운 공존의 열매를 꿈꾸며

노동력을 파는 것과 사업은 전혀 다른 일이다. 후자의 경우 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하므로 훨씬 까다롭다. 네팔 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된 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배우자와 결혼하거나 귀화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늘었다.

창신동 골목시장 근처로 향신료 냄새가 매력적인 음식점이 여럿 보인다. 드나드는 사람들의 인종도 가지각색이다. 네팔 음식점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이곳에 ‘네팔거리’라는 이름이 붙은 지 10여 년 남짓, 그 시작은 18년 전부터 한자리를 지켜온 음식점 ‘에베레스트’였다.

2층 가게 내부로 들어서자 선반마다 빼곡히 찬 오브제들이 눈에 들어온다. 힌두교와 불교가 주류를 이루는 네팔답게 가네샤 신상과 불상, 오방색으로 장식된 모습이다. 테이블에는 친구들과 식사를 즐기는 네팔사람, 이색적인 음식을 먹으러 찾아온 한국인, 몇몇 외국인 관광객도 보인다.

한국생활 20년차인 에베레스트 식당의 구룡 사장은 언뜻 보면 외모도 말투도 영락없는 한국인이다. 한국에서 무역과 항공업에 종사하다가 장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처음 문을 열 때만 해도 네팔 음식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개의 지점이 생긴 에베레스트 식당을 비롯해 다른 가게도 많이 생겼다. 일 때문에 일본,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 기렸지만 결국 한국에 정착했다는 그는 “문화적으로 비슷한 이곳에 깊은 정을 느꼈다”고 말한다. 구룡 사장은 한국에서는 식당과 네팔 등반 산악회를 운영하고, 네팔에서는 한국 총판 일을 맡는 등 양국에 서로의 문화를 적극 알리고 있다. “예전만 해도 네팔 사람들이 경기도, 서울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지역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잘 되어있고요. 네팔인이 정착한 후 이제 2세대가 생기는 시기예요. 우리가 기반을 잘 만들어놓아야겠죠” 그의 꿈은 한국에 네팔문화원을 세우는 것이다.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알 수 있다. 네팔인들이 한국에서 이뤄온 열매를 보며 우리가 같은 땅, 같은 별 아래서 뿌리를 이은 채 이미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또렷해진다. **共**





안녕, 뚜언?

글 | 정혜인

쑤언을 처음 만난 건 2015년, 내리는 비에 라일락이 모두 저버린 늦은 봄날이었다. 화장기 없이 초췌한 얼굴빛, 잔뜩 주눅 든 표정. 조금만 다그치면 눈물을 왈칵 쏟아낼 것 같은 모습이었다. 쑤언이 나를 만나러 온 것은 아들 준수 때문이었다. 쑤언에게 준수는 한국살이를 버틸 수 있는 이유이자 살아갈 목적 같은 것이었다. 쑤언은 준수를 뚜언이라고 불렀다.

쑤언, 뚜언, 낯선 이름인 데다 발음까지 비슷해 첫날 여러 번 헷갈렸다. 봄꽃이 흐드러진 날 태어나 할아버지가 쑤언(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다. 쑤언의 꿈은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 쑤언은 17살에 42살 한국남자와 결혼해 베트남을 떠나왔다. 결혼하고 바로 뚜언이 태어났으니 아들이 아닌 동생처럼 보이는 것도 당연했다.

뚜언은 또래보다 체구가 작고, 낯선 이를 경계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였다. 엄마와 달리 한국어를 말하고 쓰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입학한 지 3개월이 지나도 입을 거의 열지 않아 나에게 오게 되었다. 선택적 무언증으로 보였으나 증상을 정의하는 것보다는 왜 말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 봐야 했다.

뚜언은 학교에 간 첫날부터 입을 닫기로 마음먹었다. 입학식 날, 아이들 사이에 서 있는 다른 엄마들은 계속 쑤언을 흘깃흘깃 결눈질했다. 혹시 뚜언과 자기 아이가 같이 앉을까 봐 아이들을 이리저리 밀면서 최대한 뚜언과 떨어뜨려 놓았다. 뚜언은 그날 본 기억을 잇을 수가 없었다. 엄마와 자신을 밀어내는 시선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견디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언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히려 배타적인 시선, 잘못된 끼리 문화로 소외당하는 일이 훨씬 많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생활은 아이 혼자서가 아니라 엄마와 같이 시자해야 하기에 엄마들끼리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엄마가 설 자리는 언제나 좁다. 더군다나 수언처럼 한국어가 서툰 경우는 어려움이 더 크다. 두언은 그런 엄마가 안쓰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엄마를 지키기 위해, 엄마를 배척한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차단했다. 두언은 공존을 꿈꿨지만 아무도 두언을 자신의 리그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것이다.

“안녕, 두언!”

두언의 눈이 커졌다. 한국인인 내가 준수라고 부를 것이라 생각했는지 놀란 눈치다.

“두언아, 미안해. 나는 엄마와 네가 사용하는 언어를 쓸 줄 몰라서 네 이름만 불러줄 수 있어. 네가 하나씩 가르쳐준다면 나도 잘 배워볼게.”

이후 나는 두언과 차츰 가까워졌다. 엄마 수언의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다.

사회는 말한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세상은 말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사회는 모든 것을 유목화하고 평가해 더 잘 분류하려 한다. 섞이길 바라는 동시에 나누려 애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암묵적으로 특정 집단에 특정 개인을 쫓겨 넣고, 개인으로 하여금 그 집단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만든다. 여덟 살 꼬맹이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언과 두언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다문화 구성원이나 재한외국인이 자기주장을 뚜렷하게 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자신과 아이

에게 잘못을 귀인하게 된다. 이럴 땐 본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학교 및 한국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wee센터와 연계한 전문가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내국인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두언의 마음을 연 것은 아주 사소했다. 너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너를 밀어내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 네가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것,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는 것을 표현했을 뿐이다. 결국 ‘나도 끼워줘’라는 의미의 말, 이 작은 의사 표현이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어른이 어떻게 안내하느냐에 따라 내국인 아이 역시 지적발달과 정서적발달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화령기 아동의 가장 큰 특징은 가역적 사고와 탈중심화의 발달이다. 즉 아동이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두언과 같은 다문화 친구를 자신과 다르다고 분류하지 않고 끌어안는다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아이가 공존의 개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추상적 개념을 배우는 지적발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두언은 6학년이 되었고, 어느새 엄마 수언도 능숙한 한국 화부형이 됐다. 두언을 어떤 학원에 보내는 게 좋을지, 좋은 학군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학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꿰고 있다. 지난 주말 수언에게 전화를 걸었다.

“봄이 씨! 잘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두언은 온라인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빨리 학교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두언이, 학교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共**

상담센터 ‘플리마인드’의 대표 정혜인님은 (사)한국심리건강진흥원장,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 서울센터장 및 서울사이버대학교 특수심리치료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 학교와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심리상담 관련 프로젝트 및 지문을 수행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코로나19 총력 대응의 최전선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가 출입국 정책의 중심 부처로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하며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출입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국내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전염병 환경에서도 선제적 맞춤 정책을 통해 우려를 희망으로 바꾸고 있는 외국인본부의 코로나19 대응현황을 정리했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



1.28

법무부는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1월 28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외국어 통역지원을 강화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종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해왔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체류 외국인의 관련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상담지원을 위해 24시간(토·공휴일 포함)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행동수칙 안내와 함께 3자 통역 서비스도 제공했다.

중국 입국제한조치

시행 및 제주

무사증 정지



2.4

법무부는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에서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였으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했다. 또한, 신규 관광목적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을 일시 정지하고 ▲신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모든 무사증제도를 잠정 중단했으며, 입국제한 대상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모든 입국 외국인의 자동심사대 이용을 중단했다.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지원대책 마련



2.6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학사일정에 맞추어 입국하지 못한 채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유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해당 유학생들의 명단은 별도로 관리하여 향후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를 재발급받도록 지원하고, 수수료를 면제하여 비자 재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개강일정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체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류기간 연장 등을 탄력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현행 한국어연수과정(D-4)의 경우 온라인 강의를 허용하지 않지만 대면교육 실시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허용했다.

민·관 합동
중국 동포밀집지역
안내·계도 활동 실시



2.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 코로나19 발생 방지 안내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대림2동 치안대책 민관협의체,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3곳(한중사랑교회, 중국동포지원센터, 한민족연합회) 소속 직원 3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근 주민과 동포들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문과 함께 마스크를 나눠주며 마스크 착용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정보취득에 취약한 동포 및 단기체류 중국인 등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동포사회가 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홍보 활동을 마련했다.

외국인 유학생
소속대학 관계자의
체류허가
단체접수 확대 및
온라인 접수 추진



2.1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유학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일부 대학만 단체접수를 허용했으나 단체접수를 전체 대학으로 한시적 확대했다. 개별 유학생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학 관계자를 통해 손쉽게 체류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면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학사일정 등으로 일부 기간에 집중되던 민원혼잡도를 감소하고 대면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했다.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조치
시행



2.24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의 체류기간을 4월 30일로 일괄 연장했다. 이는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된 조치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민원인이 기관 방문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수도 감소해 감염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일본 입국제한조치 시행



3.9

법무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에 따른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우선 모든 유효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해 대한민국 입국 시 사증면제조치를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일본여권 소

지자는 비자를 받아야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주재 대한민국 전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유효 사증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는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여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온라인\(hikorea.go.kr\)
으로 가능](#)



3.11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범심사를 받고, 출국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범죄 수배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출국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제도로 출국 3일~15일 전까지 온라인 신고를 한 경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하고 곧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



4.1

2020년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간 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활동범위의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지금까지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으나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심사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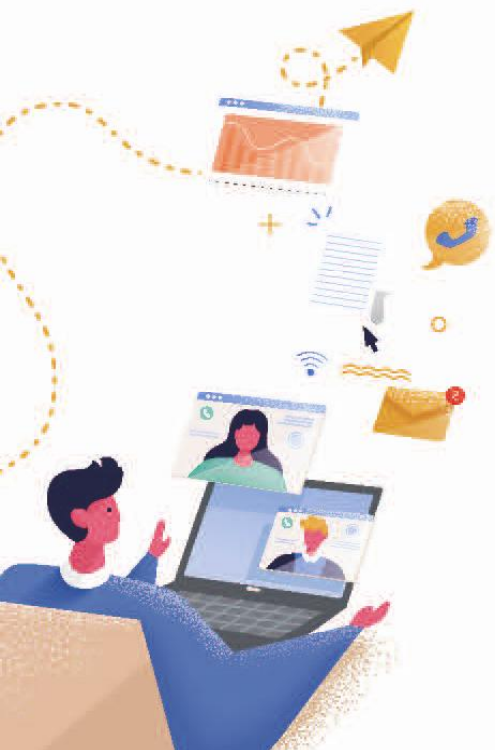


4.13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법무부와 외교부는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로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2020년 4월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 및 지역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상호주의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만일 해당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이전 입국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고,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며,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共**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일자별 주요상황

일자	주요상황
1. 8.	감염병 위기경보 「 관심 」 발령
1. 20.	국내 첫 확진자 발생
1. 20.	감염병 위기경보 「 주의 」 발령
1. 2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감염병 대책반 」 편성(출입국심사과)
1. 27.	감염병 위기경보 「 경계 」 발령, 출입국상황실 확대개편(실장:본부장)
1. 28.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체계 전환
2. 4.	중국 입국제한조치 시행 (제주무사증 정지 등)
2. 12.	홍콩, 마카오 특별입국절차 적용
2. 20.	국내 확진자 100명 돌파
2. 23.	감염병 위기경보 「 심각 」 발령
2. 24.	합법체류 외국인 체류기한 일괄 연장조치 시행
3. 4.	출국금지자 통지방식 변경(등기→준등기)
3. 9.	일본 입국제한조치 시행
3. 12.	WHO 최고단계(팬데믹) 선포
3. 12.	이탈리아, 이란 특별입국절차 적용
3. 15.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적용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3. 16.	유럽발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3. 19.	국내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3. 22.	유럽발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적용
3. 27.	미국발 모든 입국자 검역강화조치 시행
4. 1.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
4. 13.	단기사증 무효화, 사증면제/무사증 정지(90개국)





혈액수급 안정화 위한 직원 및 재한외국인 단체헌혈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헌혈 기피현상으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단체헌혈 취소가 잇따르고, 개인헌혈마저 감소함에 따라 혈액량이 부족해진 것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청·사무소는 소속 직원과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헌혈행사를 개최하며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월 1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직원 등 19명이 단체헌혈에 동참했으며, 같은 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각각 11명이 단체헌혈에 동참했다. 2월 20일에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직원 및 이민자네트워크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헌혈행사가 진행되었으며, 3월 9일에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직원 등 9명이 단체헌혈에 참여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부산혈액원과 협력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혈액부족 사태를 극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생명나눔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힘내라 대한민국, 방역물품 기부·지원

전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및 사무소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차단과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조기극복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인천 국제성모병원과 검단탑종합병원에 마스크 500개를 전달했으며,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순천의료원, 여천전남병원 등에 KF94 마스크 2,500개를 지원했다. 또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지역 의료시설에 각각 마스크 1,500개를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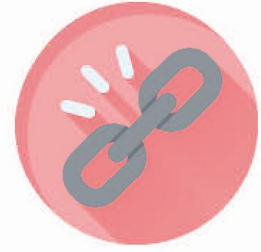
훈훈한 미담사례도 이어졌다. 양주시 소재 ‘코리아벨벳’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파키스탄 출신 귀화자 칸살림 씨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스크를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마침 관내 이주여성쉼터에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이곳에 마스크를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성금 기부

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와 직원들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사회통합협의회 회원들은 2월 28일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69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마스크 부족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지역 시민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마련됐으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도 힘을 보탤었다. 한편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3월 1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고객과 국민의 '공존 연결고리'를 꿈꾸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글 | 김소리 사진 | 이동훈

지난 3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마곡의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2013년 7월 목동에 개소한 이래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공간을 함께 사용해 늘 넘치는 민원인으로 혼잡했던 남부사무소, 이제는 넉넉하고 쾌적한 청사, 밝고 환한 웃음으로 민원인을 반기고 있다.





새로워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소개합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서울의 7개 구와 경기도 광명시를 관할한다. 약 130명의 직원이 외국인 등록 및 체류 허가,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국적 및 조사, 청사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부사무소는 국내 출입국 관련 단일기관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을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전국 1,731,800여 명(등록외국인 1,271,807명/거소신고 459,996명)의 외국인 중 20여 만 명으로 무려 1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출입국사무소는 국내 행정기관 중 외국인과 가장 밀접하게 교류하는 곳이다. 안내, 허가, 통제, 통합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민원인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 새롭게 문을 연 남부사무소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9,917㎡ 규모의 면적을 자랑한다.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등 교통이 편리한 데

다 김포공항과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의 접근성도 크게 높아졌다.

코로나19 때문에 개청식은 아직 못 했지만, 이곳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우선 1층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중국체류민원실을 두어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였다. 남부사무소 민원인의 대다수가 중국인과 중국동포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 수가 줄면서 방문 민원인도 다소 줄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700~1,000명 가량이 꼬박꼬박 이곳을 찾는다. 이들이 편하게 앉아 쉴 수 있도록 대기 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해 민원인의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

직원들의 업무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다. 전보다 표정도 한층 밝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다. 이상달 남부사무소장은 새 청사를 통한 선순환의 흐름을 강조했다. “좋은 환경이 좋은 자극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 모두 청사에 걸맞은 수준 높은 응대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야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상달 소장

남부사무소 친절 응대의 원동력은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

입국에 부적합한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건 공항에서 하는 일이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의 절대다수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며, 출입국사무소는 이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방문 민원인 모두가 소중한 정책 고객이라는 마음으로 성심껏 응대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이상달 소장 역시 직원들에게 언제나 이 부분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이 나뉠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처리해줄 수 있는 입심에도 응대가 미숙해서 억울함을 겪는 민원인이 생기지는 않아야겠지요. 규정에 맞지 않은 일은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가 규정대로 안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부사무소 관할지역인 영등포구, 구로구 등에는 많은 중국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남부사무소는 이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국동포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흔히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는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아내를 왕비로 모시면 내가 왕이 된다는 탈무드의 말처럼, 주요한 정책 고객인 중국동포에게 새 청사에 걸맞은 수준 높은 응대를 먼저 제공함으로써 남부사무소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win-win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얼굴들

관리과 체류팀
정경하
출입국관리 서기



관리과 운영지원팀
양지성, 박연진
출입국관리 서기



“나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디딤돌** 이다.”

체류업무야말로 출입국업무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업무도 복잡하고 지침도 방대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됩니다. 다행히 입사 초 좋은 선배님들께 많은 걸 배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요. 제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운 것들을 동료, 후배와 나누며 우리 체류팀이 더욱 발전하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피로회복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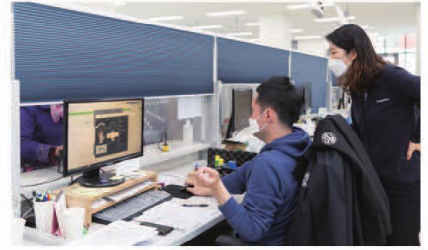
운영지원팀은 사무소의 인사, 시설, 물품,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해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복잡한 업무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이 겪는 심신의 어려움까지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지요. 어려운 업무들로 힘들어하는 동료분들! 언제든지 운영지원팀에 방문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적극행정으로 '공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다

이처럼 수준 높은 민원 응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남부사무소답게 각종 행정 업무에 고객의 필요를 적극 반영해나가고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신고한 체류지 또는 근무처에서만登記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원 제안을 수렴해 지난해부터 민원인이 희망하는 주소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올해도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기관을 이용하고, 기분 좋게 업무를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 덕에 남부사무소는 2019년 상·하반기 모두 '인권보호 최우수 출입국 관리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소장은 “법적으로 안 되는 민원을 되게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왜 안 되는지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다행히 이런 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라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아직까지도 출입국 기관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우리국민이 많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때문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우리국민을 위한 것이지요. 우리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아주시고 관심과 이해를 보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소장의 말처럼 외국인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우리국민을 위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으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共**



사법과
김민경
출입국관리 서기



“나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파수꾼** 이다.”

저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외국인에게 법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이곳의 법을 잘 준수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우리국민과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겠지요.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때 항상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 또 신중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함께 어울려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조사과
조의진
출입국관리 서기보



“나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신호등** 이다.”

조사과는 우리나라를 출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도로 위 신호가 빨간불일 때 길을 함부로 건너면 안 되듯,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에 머물지 못하도록 조사 및 단속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업무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일인 만큼 항상 신중하고 정확해야 하겠지요. 민원인 입장을 잘 헤아리고, 선후배 동료들과 행복하게 임무를 수행해가고 싶습니다.

‘적극행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다

외국인 어선원 육상근무 허용을 통한 어민 인력난 해소 정책

어획물을 건조하는 어장막은 대부분 섬에 위치하고 있어 내국인 노동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외국인 선원을 어장막 인력으로 활용하는 일이 빈번한데, 국내 어획산업 관련법 상 외국인만 수산물 포획 노동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 선원이 선박의 어획물 포획 작업뿐 아니라 어획물 생산 관련 노동 시에도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 육상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제도를 이용하는 국내 어민들도 점점 늘고 있어 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육상근무자를 타 선박으로 불법 파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허용 인원과 기간을 적절히 제한한다. 또한 외국인 선원이 어획과 어장막 근무를 동시에 할 경우 근무시간 확대에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어장막 근무 후 어획활동으로 전환하는 순환방식만 허용한다.

박정석 계장은 “선상 이외 장소에 외국인 선원 취업을 허용할 경우 내국인 고용침해, 외국인선원의 노동 강도 증가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실사를 나가 외국인 선원을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법을 마련해나간 덕에 정책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외국인 선원은 선박에서 포획 작업만 가능



외국인 선원은 선박 포획 작업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어획물 생산 활동에 따르는 건조, 선별 등 작업도 가능

외국인 어선원 육상근무 허용을 통한 어민 인력난 해소

지난 1월,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모두 거머쥐었다. 체류관리과 박정석 계장의 '외국인 어선원 육상근무 허용을 통한 어민 인력난 해소'와 노종인 계장의 'QR코드를 활용한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심사 개선' 제안이 가져올 작지만 큰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QR코드를 활용한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심사 개선 정책**

크루즈 관광은 타 여객 수단보다 많은 승객이 이용하며, 관광객의 체류시간은 짧은 편이다. 때문에 신속한 출입국 수속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크루즈 승객의 출입국심사서비스가 대폭 바뀌었다. 기존에는 여권 사본과 입국심사인 날인 등을 통해 크루즈 입국심사를 진행했으나 이제는 관광상륙허가서 스티커와 QR코

드를 활용한다. 이와 같은 정책 개선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상륙허가서 회수 규정을 검토하여 개정하고, QR코드스캐너 등 관련 장비를 갖추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덕분에 크루즈 승객 및 선사 등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국내 크루즈 활성화에 영향을 미쳐 국내 관광산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신속하고 간편한 출입국심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객뿐 아니라 출입국심사관들의 업무도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한 대의 크루즈가 입항할 때 최대 5,000명의 승객이 쏟아지는데, 기존에는 소수의 심사관이 단시간 내에 심사인 날인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노종인 계장은 “출입국심사 종료 후 어깨 근육 피로 등을 호소하는 등 심사관들의 고충이 컸으나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共**

이렇게 바뀌었어요!



입국 시: 입국심사인 날인
출국 시: 여권사본 회수



입국 시: 스티커형 관광상륙허가서 발급 및 부착
출국 시: 관광상륙허가서를 탑재한 QR코드로 본인 인증

신속·간편·효율적인 출입국심사로 크루즈관광산업 경쟁력 및 관계자 만족도 제고

TOGETHER



‘우리’가 되는 첫걸음! 사회통합프로그램

우리나라에 정착한 이주민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일 것이다. 쉽게 익히기 어려운 타국의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장벽이 된다. ‘남’이었던 외국인이 ‘우리’가 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는 지름길!

2009년 4월 도입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이다.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도와 국민과 원활히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크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입 첫해인 2009년에 20개에 불과했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은 2018년 309개로 증가했다. 참여자 수도 2009년 1,331명에서 매년 급증하여 2019년에는 56,535명에 달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수



0~5단계로 차근차근 배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과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가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이민자의 한국어·한국문화 이해 수준에 따라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별로 받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0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교육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으며, 가장 높은 5단계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등 이민자가 우리나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익혀야 할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교육 결과는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법무부에서 주관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와 1~3단계 교육 종료 시 운영기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단계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문화와 낯선 환경, 생소한 언어로 한국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이민자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제도다. 앞으로도 지속적 개선과 홍보로 많은 이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길 기대한다. **共**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혜택

- ✓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귀화용 이수완료자)
- ✓ 귀화 면접심사 면제(5단계 70시간을 수료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 ✓ 영주자격 신청 시 기본소양요건 충족 인정
- ✓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가점 등 점수 부여,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 ✓ 사증 신청 시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교육 단계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의 '2018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참조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

글 |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임대료를 못 내는 자영업자, 무급휴직을 당한 회사원, 온라인 수업에 새로이 적응해야 하는 교사와 학생들, 학교에 가지 않는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무엇보다 방역을 위해 밤낮없이 휴일까지 반납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까지, 모두가 힘들다. 게다가 이 힘겨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한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4월 중순 이후 10명 내외로,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보건당국자의 말이다.

경제위기는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자본은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아웃소싱과 글로벌 체인을 형성했고, 이는 세계 경제를 거미줄처럼 얽혀 상호의존하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로 만들었다. 아웃소싱이 어려운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노동자들을 불러들여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체제는 자본, 상품, 노동(사람)의 이동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었다. 20세기 후반 냉전시대가 종식된 후 지금까지 세계는 줄곧 글로벌 이동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왔으며 한 번도 뒤로 역행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글로벌 이동성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사람의 이동은 사실상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항공산업, 여행업, 숙박업 등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당장의 피해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는 사람들이 글로벌 이동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해외 취업을 떠난 사람들이 원하는 때에 모국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순위로 해고당하는 것도 모자라 안전장비나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는 상

한국은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서도
전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적 모델이 하나의 희망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황도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해외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속히 귀국하지 않으면 돌아오고 싶을 때 못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을 보았다. 코로나19로 유럽에서 취업 중이던 아프리카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시행한 국경 봉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아직 결론을 내기는 이르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그 효과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미국은 코로나19가 팬데믹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초기부터 외국인 유입을 강력하게 통제했다.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2월 하순에는 이란, 3월 11일에는 생젠지역 26개 유럽 국가들로 확대하였다. 이처럼 강력한 국경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3월 19일 확진자가 누적 1만 명을 넘어섰으며 4월 27일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경을 봉쇄했음에도 불과 40여 일 만에

확진자가 10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경 봉쇄의 더 큰 폐해는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이 외부인에게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각국 정부가 전염병 통제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전염병의 원인을 외부인에게 돌리는 결과를 야기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국 내의 외국인,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미국과 호주, 독일 등 해외에서 언일 보도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인종차별적 발언, 모욕 등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시대를 거슬러 퇴보하는 지구촌의 민낯은 '이주의 시대'를 살던 인류를 더욱 불편하게 한다. 그렇다고 마냥 우울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면역력은 바이러스를 이겨내면서 강화되듯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이 위기도 잘만 활용하면 글로벌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무엇이 현재 글로벌 사회를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들

고 있는지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자유해야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2015년에 타계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면서, 위험사회에서는 과거 근대화의 핵심 이슈였던 국가 간 경쟁과 불평등이 아니라 기후재난이나 전염병 등의 '위험'이 인류가 직면하는 핵심 문제라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효율'에 밀려 부차적으로 여겨졌던 '위험'을 중심에 놓는 성찰적 근대화가 요구되며, 국가는 국가 간 경쟁에 몰두하며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에서 세계시민의식을 갖는 국가(코스모폴리탄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저명한 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최근 한 언론기고문에서 전염병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이 글로벌 이동을 막는 고립주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개방 속에서 글로벌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약하자면 ‘우리’ 또는 ‘자국민’만 위하는 배타적 사고가 전염병 시대 글로벌 사회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며, 인류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각 국가가 ‘우리’만 위하는 모습을 넘어서 인류 공동선을 추구하고 연대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코스모폴리탄 국가로 전환할 때 지구촌의 면역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두 학자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 전염병으로부터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모두가 함께 안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로벌 차원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국가가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면역력도 함께 높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대응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고립주의를 택한 국가들은 경제와 국제관계에서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출입국 통제를 했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서도 전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

다. 한국적 모델이 하나의 희망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하라리도 한국의 대응방식을 글로벌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입국금지 대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하는 방식을 택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비한 검역 역량과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우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진단키트 등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연대를 실천하고 있다. 향후 고립주의가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은 많은 나라들이 한국적 대응방식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자도생으로 글로벌 리더가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이 글로벌 연대를 이끌어내는 국제적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내에서도 고립주의를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에 중국 전체를 입국금지 대상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개방의 원칙을 고수하였고

우한으로부터 오는 외국인 이외에는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다. 정부가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기는 어려운데, 이번 코로나19 때에는 당장 국민의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국내외적으로 박수를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물론 정부 리더십의 공로만 돌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 지침에 잘 따라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식은 향후 전염병 발생 시 국제사회가 어떤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이번 코로나19가 해결되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염병은 언제 어떻게든 다시 오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뉴 노멀’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뉴 노멀에 세계시민의식 또는 인류가 운명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이 포함되길 희망해본다. **共**

공존 독자와 함께하는

#덕분에챌린지 온라인 이벤트



참여기간

2020년 6월 15일~7월 15일

참여방법

- 1) 본인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덕분에챌린지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해당 이벤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 3) 이벤트에 참여한 본인의 SNS 주소를 댓글에 달아주세요

경품

멋진 인증샷으로 덕분에챌린지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10분을 선정해 스타벅스 기프트콘(2만 원)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0년 8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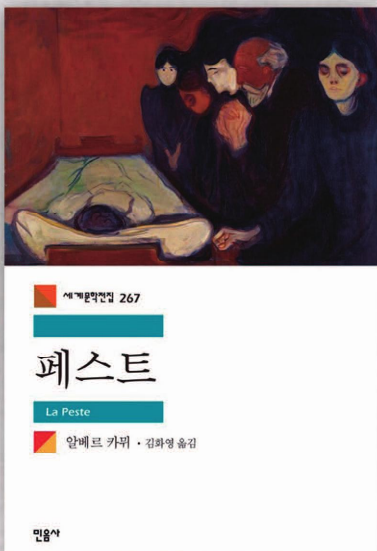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당첨을 확인하세요!

더 잘 패배하기 위해 우리는 연대해야 한다

— 알베르 카뮈 『페스트(La Peste)』

글 | 김소리

소설 속 페스트는 그 자체로 거대한 메타포다. 작중 배경 역시 현대사회를 노골적으로 상징한다. 알제리의 변두리에 위치한 오랑은 아름다운 만을 접하고 있지만 도시 전체가 이를 등지고 있어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그 푸른 물결을 볼 수 없는 곳, ‘초목도 녀도 없는’ 도시로 묘사된다. 이곳에서 시작된 비극의 서사, 그 문장에 우리의 ‘코로나 시대’를 비춰본다.



재앙은 이주민에게 더욱 가혹하다

오랑에 머무는 이주민이 있다. 장 타루는 언젠부턴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예술인들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으로, 그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랑베르는 취재를 위해 오랑을 방문한 젊은 기자다.

내지인과 타지인을 껴안은 이 도시에 비극이 찾아든 건 순식간이었다. 페스트가 창궐하면서 도시에 거대한 벽이 세워지고 외부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차단된다.

페스트는 모두를 ‘사적인 감정은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다. 책의 화자인 의사 리유는 페스트가 침범한 도시민의 일상을 ‘귀양살이’로 묘사한다. 모든 소중한 것으로부터 강제로 차단되는 일, 두려움과 고독 속에 생을 버터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귀양살이는 이주민에게 더욱 가혹했다. 대개의 경우는 자기의 삶터에 유배되지만, 이들은 낯선 땅에 얽매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떠안아야 했다. 그들은 ‘가장 사무친 유형수’였다.

페스트로 보는 추상, 실제 그리고 연대

재앙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양했다. 신의 뜻을 역설하고, 술을 마시고, 혼란을 틈타 잊속을 챙기고, 자신만의 정의를 향해 손을 뻗는 이들. 앞서 말한 두 이방인의 태도도 사뭇 달랐다. 타루는 페스트로부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 시민보건대 조직에 발 벗고 나섰으며, 파리에 아내를 두고 온 랑베르는 오랑을 빠져나갈 방법을 간절히 찾아 헤맨다.

랑베르는 리유에게 자신은 이 도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한다. 아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도와줄 수는 없다는 의사를 표하는 리유에게 랑베르는 외친다.

“아뇨, 선생님은 이해하지 못하세요. 선생님 말씀은 이성에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선생님은 추상적이십니다.”

책은 '추상'이라는 표현을 반복한다. 재앙에서 한 뼉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페스트는 추상이고 개념이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사랑하는 이와 떨어져 질병의 공포까지 겪어야 하는 이에게 페스트는 결코 추상일 수 없다. 오히려 피부에 바짝 붙은 분명한 실체다.

이처럼 강렬한 실제 앞에서 추상의 질서는 재편된다. 더 이상 국적과 법률 등의 '개념'이 우리를 규정하거나 구분 짓지 않는다. '실제'를 함께 겪은 사람이 곧 하나의 집단이 되는데, 랑베르의 말이 이를 증명한다. 그는 관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질렸다고,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고 싶다고, 반드시 오랑을 빠져나갈 거라고 말하지만 정작 탈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늘 이 도시와는 남이고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볼 대로 다 보고 나니,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나도 이곳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이 사건은 우리들 모두에게 관련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오랑에 남아 보건대 활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한다.

어린이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회의를 느끼는 리유에게 파늘루 신부는 은총의 역설을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리유의 대답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한다.

"우리는 신성모독이나 기도를 초월해서, 우리를 한데 묶어주는 그 무엇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조차도 이제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연대는 '정의'나 '관념'이 아니다. 재앙이라는 '실제'에 맞설 가장 합리적이고 성실한 대처다. 같은 비극을 겪은 이들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추상을 넘어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일시적인 승리, 구원의 또 다른 이름

페스트는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레 사라졌다. 오랑의 두 이방인은 서로 다른 결말을 맞는다. 자신의 정의에 스스로를 내던진 타루는 페스트로 목숨을 잃었고, 사랑과 체온을 좇던 랑베르는 마침내 아내와 재회한다. 이들의 엇갈린 결말은 재앙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거대한 이념이나 완전한 안위가 아닌 서로의 여린 살갓을 의지하는 일,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함께 발버둥치는 일이다.

페스트의 종식 앞에서 리유는 다시 한 번 '귀양살이'를 언급한다. 모든 사람들이 괴로운 휴가, 결코 채울 길 없는 갈증으로 다 함께 고통을 당했으며 이들 모두의 진정한 조국은 시가의 담 저 너머에 있었다고 말이다. 재앙으로 인해 이전의 삶에서 추방당할 때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 되며, 일순간 우리의 조국은 같아진다. 제노포비아가 손잡이 없는 검과 같은 이유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많은 한국인이 해외 입국을 제지당했다. 우리는 언제든 외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페스트는 질병, 비극, 고통, 인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인류는 언제, 어떻게 다시 페스트를 마주할지 모른다. 반드시 다시 찾아올, 다른 얼굴을 한 페스트를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선생님이 말하는 승리는 언제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싸움을 멈추어야 할 이유는 못 됩니다."

"물론 이유는 못 되지요, 그러나 그렇다면 이 페스트가 선생님에게는 어떤 존재일지 상상이 갑니다."

"끝없는 패배지요"

화자 리유는 페스트를 '끝없는 패배'라고 말했다. 모두에게 닥친 재앙 앞에서 '나의 승리'란 성립할 수 없다. '너의 패배'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우리는 연대함으로써 함께, 잘 패배해야 한다. 그 일시적인 승리의 점철이 결국 '구원'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共**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명 시대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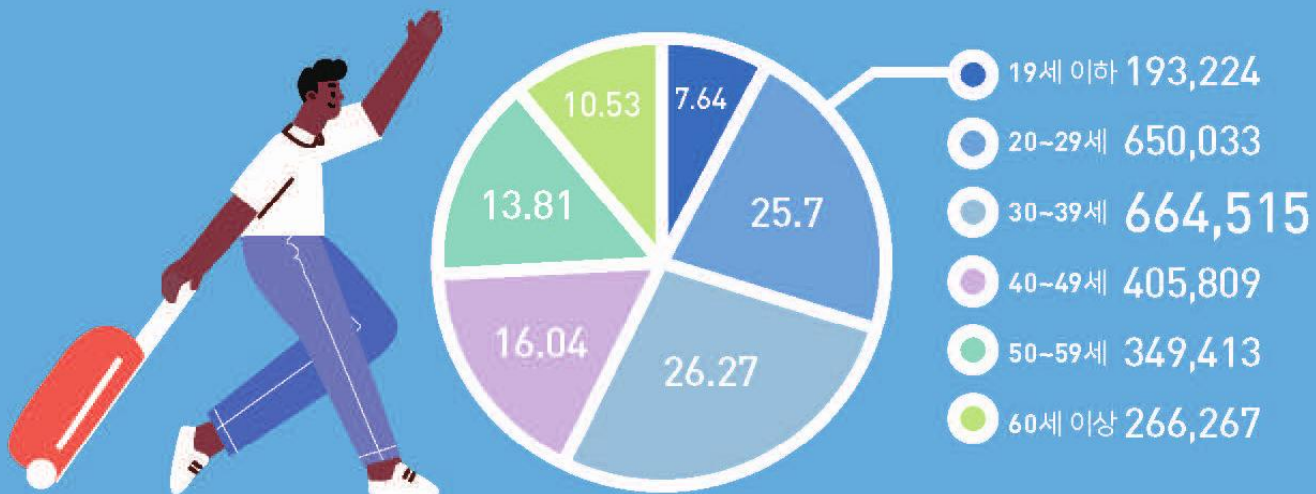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돌파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252만 4,656명으로 전월보다 3.7%,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6.6% 늘어났다. 2007년 100만 명, 2016년 2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외국인 25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 통상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 목전에 다다른 셈이다.



체류 외국인 연도별 현황 (단위: 명)



체류 외국인 연령별 분포도 (단위: 명, %)



체류 외국인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 1,782명으로 43.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0만 1,098명 (63.3%)은 한국계 중국인이다. 베트남이 22만 4,518명으로 그 뒤를 따랐고, 태국(20만 9,909명), 미국(15만 6,982명), 일본(8만 6,196명) 등 순이다.

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 (단위:명)



등록외국인 수도 127만 1,807명으로 전년 대비 2% 늘어났다. 이들의 거주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41만 4,318명)가 가장 많고 서울(28만 1,876명), 충남(세종시 포함·7만 6,375명), 경남(7만 6,123명), 인천(7만 2,259명) 순이었다. 共

등록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명)



결혼이민자 연도별 추이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추이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단위:명)



INSIDE

01

제13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법무부는 2020년 5월 2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로 제13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난 2008년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외빈초청 및 공연행사를 취소하고, 유공자 포상식 행사로 규모를 축소해 개최되었다.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대통령표창 등 총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속 영거 수산나 메리(Younger Susannah Mary) 여사가 대통령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했다. 1959년 23세의 나이에 한국에 입국, 6·25 전쟁 등 대한민국의 참상을 목격한 뒤 대구·경북 지역의 소외된 여성과 청소년의 자립, 낙후된 농촌의 발전을 위해 힘쓴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울러 19년 동안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료보급 등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온 (사)충남다문화가정협회 박인규 회장, 재한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대국민 인식개선에 기여해온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등이 재한외국인 사회 통합업무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02

주한 태국대사 면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3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롬마니 카나 누락 태국 대사를 접견하고 코로나19 공동 극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유기적인 협력 대응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해가기로 했다.



2020년 국적심의위원 위촉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0년 제1회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적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식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한 민간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앞으로 국적심의위원회는 국적제도나 국적정책에 대한 고견을 수렴하는 등 더욱 내실을 잘 다져갈 계획이다.





가정폭력범 등 결혼목적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1일자로 공포했다.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목적으로 초청할 경우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이들로부터 결혼이민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결혼동거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강화하여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제한은 이미 내부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베트남 결혼 이민자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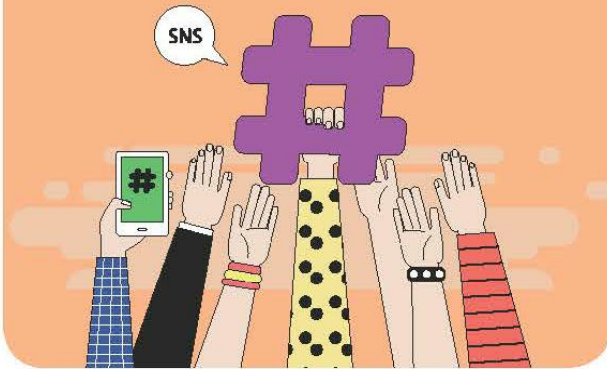
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한다. 법무부는 입국 전 가정폭력 예방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 불허 대상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동 범위 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다만 자녀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신청 가능)

출입국서비스와
외국인정책정보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www.ses.go.k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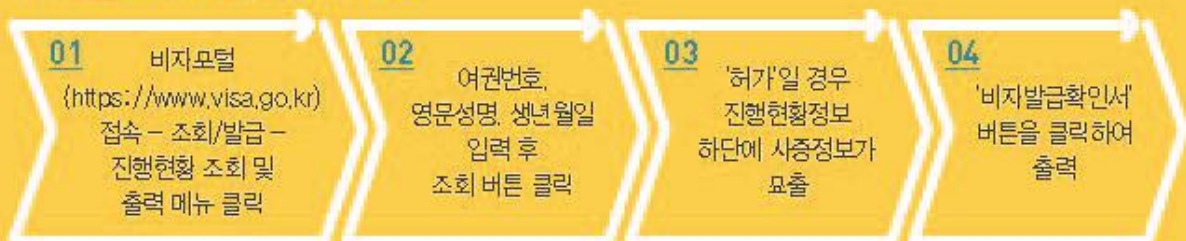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7월 1일부터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월 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전면 중단합니다. 그 대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는 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증발급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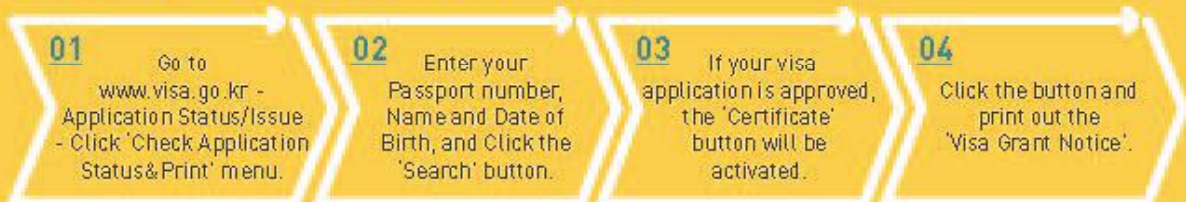
비자발급확인서 조회 및 출력 방법



Announcement of Label Free Visa Policy and Important Guidelines

All Korean Embassies will stop issuing visa labels from 1st July, 2020. When visa applications are approved, the ROK embassies will notify applicants of their visa details by issuing 'Visa Grant Notice'. Holders of a valid visa can print out the Visa Grant Notice document at any time, by entering passport information.

How to verify and print out 'Visa Grant Notic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